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변천*

이지영**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근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편찬된 교재를 수집·조사[1]하고 그 특징을 살펴 한국어 교재의 역사적 변천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교재는 편찬된 시기나 목적, 학습 대상, 저자에 따라 다양한 교재들이 개발되어 왔다. 먼저 이 연구를 통해 수집하거나 조사한 교재를 연대순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교재가 있었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아가 교재의 단원 구성 형식의 변천을 살피고자 한다. 곧, 역사적으로 한국어 교재의 단원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왔는지 살피려는 것이다. 단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단원의 제목이나 학습목표의 제시는 어떻게 해 왔는지, 본문을 제시하는

---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다(KRF-2002-073-AM1046).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이 연구를 위하여 소장하고 계신 교재를 빌려주신 여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형식이나 본문의 유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연습 문제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 소개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을 살피고자 한다.

2.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변천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외국인에게 언제부터 가르쳐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본 『續日本記』 '天平寶字五年正月乙未條'에 의하면 신라 성덕왕(聖德王)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2)]

(1) 乙未 令美濃・武藏二國少年 每國二十人習新羅語 爲征新羅也

한편, 중국에서는 송나라 孫穆이 『鷄林類事』를 지은 바 있고, 명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주변 국가와의 교섭을 위해 역관에 대한 교재로 『朝鮮館譯語』가 간행되어 역관들이 조선어를 학습하였다. 그 뒤 일본에서 유학자 雨森芳洲의 건의로 1727년에 한어사(韓語司)를 설립하였고 『交隣需知』나 『隣語大方』[3)]이 조선어 학습서로 사용되었다 한다. 1872년 일본 대마도에 조선통사를 설치하였으나 폐지되고 이후에 부산의 초량왜

2) 박갑수(1999), 신현숙(2003) 참조.

3) 한국어 학습서로서 교토대학본[京都大學本] 『인어대방』과 일본 외무성본 『정정인어대방』이 있다. 교토대학본은 아라무라[新村出]가 가고시마에 거주하는 한국인 후예로부터 구입한 필사본 2책으로 각각 26, 28장으로 되어 있다. 외무성본은 9권을 '천, 지, 인' 3책으로 나누고 각 책의 장수는 천 33장, 지 26장, 인 36장이다. 교토대학본은 한글과 한자가 섞인 글을 주문으로 삼고 오른쪽에 가타카나와 한자를 섞은 일본어를 달아놓았고, 외무성본은 한글을 주문으로 왼쪽에 필요한 한자를, 오른쪽에 일본어를 달아 놓았다. (출처: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였으나 동경외대에 조선어학과가 설치되면서 학생들이 모두 동경으로 옮겼다. 한편, 1897년 러시아의 페테스부르그대학, 1899년 러시아의 원동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1917년 10월혁명 이후 이중언어교육이 실시되어 소련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말을 배울 수 있었다. 이는 1937년 스탈린이 민족어 교육을 금지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1935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 1949년 영국 런던대학 SOAS, 1950년 체코의 카렐대학 등 유럽의 주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1934년 컬럼비아대, 1941년 국방외국어대(DLI), 1946년 하와이대, 1952년 하바드대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였다. 중국에서는 1950년에 북경대에 한국어과가 설립되었고, 대만은 1956년부터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어 각종 문법서, 회화서, 읽기 교재 등이 편찬되고 있다. 현원숙(2001)에 의하면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지 10년 정도 되었으며, 이소영(2002)에서는 동남아시아의 한국어 교육이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에 걸쳐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여러 대학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59년 연세대 한국어학당이 처음이며, 1964년 명도원, 1969년 서울대 어학연구소/ 재외국민교육원, 1972년 언어교육학원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였다. 한편 1997년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에 해외에서의 한국학교나 한글학교가 급격히 늘어났다. 1980년대에 들어와 국내 교육기관이 증가하여 1986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교육 연수부, 1988년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1989년 선문대 한국어교육원, 1990년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이 생겼다.

그럼 한국어 교재를 시기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4] 여

4) 한국어 교육이나 교재 개발의 시기구분과 관련하여 백봉자(2001)에서는 한국어 교육 변천 시기를 '제1기 1959-1975, 제2기 1976-1988, 제3기 1989-2000, 제4기 2001년 이후'로 구분하였고 조항록(2002)에서는 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개화기의 교재/ 한국

러 가지 측면에서 시기 구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근대 계몽기에서 1950년대까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990년대부터 최근에 개발된 교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 계몽기 이전에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신라 시대부터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기록이 있었고 고려시대의 우리말이 실린 어휘집 『鷄林類事』도 있지만 정광(1990: 174-175)에 의하면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 교재나 학습서의 역사는 1492년에서 1505년 사이에 편찬된 <十三館 華夷譯語>의 맨 처음에 실려있는 <朝鮮館譯語>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곧, <朝鮮館譯語>가 이 시기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습교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기문(1982)에서는 런던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5]을 촬영하여 소개하고 있다.

(2) 天文門/ 地理門/ 時令門/ 花木門/ 鳥獸門/ 宮室門/ 器用門/ 人物門/ 人事門/ 身體門/ 衣服門/ 聲色門/ 珍寶門/ 飮食門/ 文史門/ 數目門/ 干支門/ 卦名門/ 通用門

(2)와 같이 19門 596항의 어휘가 주제별로 수록된 어휘집이다. 이 책에서는 각 행을 3단계로 나누어 한어, 그 한어에 해당하는 국어의 한자 음역, 한어의 조선한자음식의 발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1) 근대계몽기-1950년대 교재

1870년대 무렵부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를 하던 외국인 선교사들

어 교육 태동기의 교재(1897-1970년대 말)/ 한국어 교육 도약기의 교재(1980년대-1990년대 중반)/ 최근의 교재'로 구분하고 있다.

5) 이기문(1982)에 의하면 조선관역어의 여러 異本 중에서 본문이 공개된 것은 (1) 런던大學本 (2) 계 葉君山本 (3) 水戶 彰考館本 (4) 阿波國文庫本 등이 있는데 그 중 오늘날 원본이 남아 있는 것은 (1)이라고 한다.

이 한국어에 대해 배우고 이해한 바를 책으로 엮은 것이 외국과 한국에서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선교사나 외교관 또는 언어학자에 의해 영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등으로 한국어 문법이나 회화서가 간행되었다. 이들 교재의 특징은 문법에 관한 비중이 적고 회화문을 많이 제시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재의 출판이 거듭되면서 문법에 대한 기술이 자세해지고 회화문도 문법 항목과 관련지어 서술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6]

(3) Ross, J.(1877, 1882), 寶迫繁勝(1880ㄱ, ㄴ), Ridel, F.(1881), Scott, J.(1887), M. C. Imbault-Huart(1889), Underwood, H. G.(1890), Scott, J.(1893), Gale J. S.(1894)

Ross, J.(1877)는 영어로 된 한국어 회화서로서 문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도입부에서는 한국어 문법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비롯해서 인칭대명사와 동사의 특징을 서술하고 자모의 음가와 발음 규칙도 제시하고 있다. 회화부는 33과에 걸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장이 실려 있다. 문법에 관한 서술이 짧기는 하지만 최초로 책자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 문법서이며 그 당시 언어표현의 실례를 한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寶迫繁勝(1880ㄱ)의 『韓語入門』은 일본 사람을 위한 최초의 서구적 문법서로 상권과 하권에 4편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7] 상권에서는 언문 자모와 그 결합을 비롯하여 체언이라는 제목으로 어휘를 여러 가지 주제로

6) 고영근(1987)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국어문법 연구와 관련하여 인구어적 관점에서의 국어 관찰(1832-1882)/ 국어의 구조에 바탕을 둔 실용적 연구(1883-1938)/ 언어학적 관점에 의한 국어구조의 설명과 그 역사의 추적(1939 이후)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7) 김민수 외(1977), 권미정(1992), 조항록(2002) 참조.

묶어서 제시하고 있고 하권에서는 명사를 비롯하여 인칭, 성, 수, 격, 대명사, 접속사, 비교급, 관형용사,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

(4) 體言: 時節, 晝夜, 方位, 地理, 江湖, 水貌, 舟楫, 人品, 官爵, 人倫, 頭部, 身體, 貌形, 羽族, 走獸, 水族, 昆蟲, 禾黍, 蔬菜, 農圃, 果實, 樹木, 花品, 草卉, 宮宅, 飮食, 疾病, 社寺, 杠梁, 金寶, 鋪陳, 色, 衣冠, 女飾 , 盛器, 織器, 鐵器, 雜器, 風物, 視聽, 車輪, 鞍具, 戲物, 文式, 武備

Ridel, F.(1881)의 저서는 신부에 의한 불어로 된 최초의 국어문전으로 불어문법을 줄기로 하되 당시 서울말을 바탕으로 하였다. Scott, J.(1887)의 책은 문법과 회화로 구성되어 있다. 문법부에서는 한글의 자모, 명사, 형용사, 대명사, 동사, 부사, 후치사, 접속사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고 회화부는 모두 66과로 각 과는 1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과의 주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주제별로 배열이 되어 있다. Underwood, H. G.(1890)의 책은 모두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문법에 대한 해설이 12장에 걸쳐 서술되어 있고 2부에서는 영한숙어문장이 10장에 걸쳐 쓰여 있다. 영어 문법 항목과 관련된 영어문장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 놓았다. Gale J. S.(1894)에서 문법부는 동사와 어미에 중점을 두고 264개의 문법 형태를 제시하고 회화부는 천문(天文)을 비롯한 56개의 주제에 따라 1098개의 문장이 나뉘어 실려 있는데 영문 번역만 있다.

(5) 安泳中(1906), 前間恭作(1909), 池錫永(1908), 高橋亨(1909), 趙義淵・井田勤衛(1910), Underwood, H. H.(1915), Gale J. S.(1916), 朝鮮總督府(1917), 崔在翊(1918), 朴重華(1923), P.A. Eckardt(1923), 李完應(1926), 鄭國采(1926), Roth, L. de.(1936)

前間恭作(1909)은 일본인을 위한 한어학습서로 제론/ 성음/ 어사/ 회화로 나뉘어 있다. 성음에서는 발음 위주로 로마자를 곁들여 자모와 합자 방법을 설명하고 어사에서는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감동사, 조사, 어미로 나누었다. 高橋亨(1909), 趙義淵・井田勤衛(1910), 朝鮮總督府(1917), 崔在翊(1918), 鄭國采(1926) 역시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이다. 池錫永(1908)[8]에는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저술을 교정한 어린이 한자교본『兒學編』에 한자마다 오른쪽에 國語訓音, 漢音, 왼쪽에 日語訓音, 아래에 英語를 붙이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 도움이 되는 교재이다.

P.A. Eckardt(1923)는 독일인에 의해 서술된 최초의 문법서로 회화와 문장을 익히기 위한 부분이 각 과에 실려 있으며 품사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품사는 9품사체계로 '명사, 동사(반동사, 형용사, 본사, 중동사, 조동사, 합동사, 사동사, 피동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수사, 접속사, 후명사, 감탄사'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어 예문이나 단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 Roth, L. de.(1936) 역시 한국어 학습을 겸하고 있는 문법서로 단어와 용례는 모두 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며 문법 사항도 동사, 격, 어순 등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1933년 맞춤법을 반영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한편, 1920년대 말부터 소련의 고려인들을 위한 문법서 위주의 교재가 편찬되었는데 고영근(1998)에 의하면 1923년부터 편찬하여 1925년에 완성된『무식을 없이하는 자란이의 독본』에서 소련의 한국어 교과서 편찬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

8) 신현숙(1999) 참조.

(6) 원동로력학교(1927), 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긔념준비위원회(1927), 저자 미상(1933), 오창환(1930, 1933, 1934), 계봉우·강채정(1937), Pai, E. W.(1944), Pultr, A.(1954), 김병하·황윤준(1954), 김수경(1954), 계봉우(1947, 1948, 1955), 김병하(1955), Chang Hei Lee (1955), 김병하·황윤준(1957), 김병하(1958)

원동로력학교(1927)는 원동에 있는 고려학교에서 사용한 독본용 교재로 제목은『새 독본 붉은 아이 데삼권』이며 275쪽에 걸쳐서 여러 가지 글이 실려 있다. 원동교육부장이 쓴 이 책의 서문에서 (7)과 같이 그 당시 고려인의 교육에 어려운 점을 밝히고 있다.

(7) 高麗文으로된 文字上書籍이甚少함과, 高麗의 國文及漢文에對하야 一定한 規定이없는것과, 또는資格者卽國語에能하고 著作의技能이 有한者가 不足되는等임.

(8) 農村/ 農村과의련습/ 都市/ 都市課에대한련습/ 우리地方/ 우리地方에대한련습/ 사람/ 사람課의련습/ 過去/ 過去課의련습/ 붉은曆書에서/ 붉은曆書에서課의練習

(8)과 같이 주제별로 그와 관련되는 내용의 글이 실려있는데 글의 제목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農村과 관련지어 農村詩를 비롯한 농촌 생활, 동물, 과일, 농촌 생활이 주는 교훈 등을 주제로 한 글이 실려있다.

또한 오창환(1930)의『고려문전』을 통해 고려인의 표준화운동을 살펴볼 수 있다.[9] 이 책은 문자/ 품사/ 문장 등 모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 고영근(1998: 105-131)에서 오창환(1930)의『고려문전』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한인들의 표준화운동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문자편에서는 발음법과 철자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품사편에서는 8품사를 주장하였고 주시경, 김두봉과 비슷한 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문장편에서는 문장을 '월'이라고 하고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과 관련된 문장자료가 많이 실려 있다.

(9) 『고려문전』의 품사체계[10)]

名詞, 形容詞, 動詞(原詞), 助詞, 終止詞, 接續詞(吐詞), 副詞, 感歎詞(混成詞)

그 후 오창환은 『초등학교 조선어 교과서(이권, 문법과 정서법)』(1933)와 『중등학교 조선어문법 교과서(문장론)』(1934)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족어 교육에 기여하였다. 『초등학교 조선어 교과서』는 문법과 정서법을 중심으로 쓰여졌으며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학년에서는 구어와 어구의 개념을 비롯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대명사, 부사 등의 기본 개념과 사용방법, 주성분과 부속성분 등 문장 성분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4학년에서는 3학년에서 배운 기본 개념에 이어 문장의 성분을 배열하는 방법, 생략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명사의 결합, 동사의 결합, 인용문, 접속어, 문장과 문장의 결합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창환(1934)에서는 '품사론에 대한 련습과 보충/ 간단한 구어/ 복잡한 구어/ 장문/ (부록) 언어학과 조선어학사의 개요'의 순서로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계봉우·강채정(1937), 『고려어 교과서』를 비롯하여 계봉우(1947, 1948), 『조선문법』, 계봉우(1955), 『조선말의 되어진 법』, 김병하·황윤준(1954), 『조선어 교과서』, 김병하(1955), 『조선어문법』, 김병하·황윤준(1957), 『조선어문법 상편』, 김병하(1958), 『조선어문법 하편』 등이 그 당

10) 고영근(1998: 115) 재인용.

시 소련의 한인 사회에서 민족어 교육을 위한 문법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Pai, E. W.(1944), Pultr, A.(1954), Chang Hei Lee(1955)의 저서도 출판되었는데 Chang Hei Lee(1955)는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동안 일어난 철자법의 변화와 표준말 보급으로 인해 새로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 1960년대-1980년대 교재

1960년대에 들어와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을 시작으로 보다 체계화된 교재 개발이 시작된다. 연세대학교와 명도원,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면서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10) 문교부(196?), Samuel E. Martin(1960), Sung-Un Chang(1960), 연세대(1963, 1967), D. L. OLMSTED(Peter Park/ Do-Sik Kim)(1963), Chang-Hai Park(1965), Clark A. D.(1965), Dupont, Réne et Joseph Millot.(1965), B. NAM PARK(1968, 1969), Vandesande A.V.(1968), 고영근(1969) 등

연세대(1963, 1967), Chang-Hai Park(1965)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교재로 사용되었고, Vandesande A.V.(1968)은 명도원의 교재이다.

(11) 고영근(1970), 김병국(1971), 장효(1971), 許壁(1972), Dong-Jae Lee/ Byoung-Hye Chang/ John Young(1972), 김숙자(1973), 박창해・박기덕(1973), The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 Propagation(1973), 명도원(1975, 1976), 북경대/연변대(1976), 林秋山(1976), 성연경・홍종림(1977), 서울대 어학연구소(1978, 1979), 강윤호・김명희(1979), 菅野裕臣(1979), 연세대(1979), Bruce K. Grant(1979), 박기덕(1980), 서울대

어학연구소(1980), Kenny Joseph & Russel Stellwagon(1980), 박희서(1982)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1981, 1982, 1984, 1985, 1988 등) 등

자료 (11)과 같이 1970년대에서 1980년에 걸쳐서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 서울대 어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명도원 등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재가 계속 개발이 되었으며 중국이나 일본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로 쓰인 한국어 문법서와 학습서가 편찬되었다.

(12) 권승모(1984), 『조선말 회화』,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김병무・양옥주(1992), 『조선문화어강독 1(유학생용)』,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리병무(1992), 『조선문화어강독 2(유학생용)』,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안정균(1992), 『조선말 회화 2』,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자료 (12)는 김중섭・조현용(1996, 1998), 김중섭(1999)에서 분석한 북한의 한국어 교재이다. (12)에서 제시한 교재 외에도 『조선어』, 『민족과 운명』이라는 교재도 분석하고 있다.

3) 1990년대-2000년대 교재

198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여러 한국어 기관이 신설되면서 그 기관에서 사용할 교재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1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1989),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1991), 연세대(1992), Fred Lukoff(1993), 국제교육진흥원(1995), 한국 외대(1996), 이화여대(1998, 1999), 김중섭 외(2000, 2001), 서강대(2000), 서울대(2000),

선문대(2000, 2001), 이화여대(2000, 20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2001), 허병렬(2000, 2001) Young-Mee Cho/ Hyo-Sang Lee/ Carlol Schulz/ Ho-Min Shon/ Sung-Ock Shon(2000) 등

(13)과 같이 각 기관에서 말하기 교재와 읽기 교재를 개발하였다. 듣기 교재나 쓰기 교재는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대, 경희대, 서강대 교재는 통합교재의 성격이 강해 교재 안에서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를 함께 고려한 교재이다. 이대와 서강대 교재는 워크북도 함께 개발이 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어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개발한 초급 교재와 아직 개발 중인 중급 교재가 있다. 이 교재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기능별로 분리된 교재이다. Young-Mee Cho/ Hyo-Sang Lee/ Carlol Schulz/ Ho-Min Shon/ Sung-Ock Shon(2000)는 KLEAR(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에서 개발된 것으로 통합 교재이다. 그리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교재가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특히 『한국어 1-2』, 『한국어 회화 1-2』(2000)는 재외국민에게 보급하는 한편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e-book으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최근 들어 한국어 학습용 멀티미디어 교재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온라인상에서 교육하는 교재와 CD롬 교재, 비디오 테이프 등이 있다. 서강대 한국어교육센터가 서강사이버코리언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의 KOSNET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글과 기초표현,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Teen Korean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호주 모나쉬대학 등에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근대계몽기부터 현재까지 편찬된 한국어 교재의 특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근대계몽기에서 1950년대까지는 외국인에 의한 문법/

회화서 중심의 교재와 재외국민 특히 소련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재가 주로 그 시기 교재의 대부분이었다. 외국인에 의한 교재는 초기에는 서양 문법의 영향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학자의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며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재 역시 국내 문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어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교재와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 대학이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가 개발되었으나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정규/ 비정규 한국어교육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기관용 교재가 활발하게 개발이 되었고, 현재까지 언어권/ 학습대상자/ 언어기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고 있다.

3.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변천[11)]

이 장에서는 근대 계몽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재에서 각 단원의 단원 구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교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각 단원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무척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은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 저자, 학문적 경향, 대상 학습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주교재를 중심으로 살피고 읽기 교재나 듣기 교재, 문법 교재 등은 제외하기로 한다. 곧, 특정한 목적이나 수준을 대상으로 단원 구성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흐름을 살피려는 것

11) Brown(1995), McDonough, J. & C. Shaw(1993/1996), Cunningsworth Alan(1995), 이해영(2001), 민현식(2002)에서 교재 분석과 관련된 분석 기준이나 방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다.

단원의 구성은 언어교수법에 따라 구성이 달라진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교재는 주로 청각구두식 언어교수법의 영향을 받은 교재로 단원 구성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 연습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과제중심 언어교수법이 교재 구성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교재를 구성하고 있는 주제/ 기능/ 과제/ 어휘 및 문법 표현/ 활용/ 문화 등에 대해 각 과별로 자세히 제시한 도표가 실려 있다. 또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합한 통합교재 형식으로 구성되고 여러 가지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교재들이 출판되었다.

먼저, 교재를 외국인을 위해 개발한 교재와 재외국민을 위해 개발한 교재로 나누어 단원 구성이 어떠한 형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단원구성의 유형을 살피고 단원 구성의 요소인 단원 제목과 학습목표, 본문, 연습문제(과제), 문화 등이 교재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피도록 한다.

1) 외국인을 위한 교재

외국인을 위해 개발된 한국어 교재는 초창기에는 어휘집에서 시작하여 문법과 회화 중심의 교재로 개발이 되어왔다. 그 후 회화 중심의 교재가 개발되다가 언어 기능별로 세분화되기 시작한다. 교재의 목적에 따라 단원 구성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 시기 중점이 되는 언어교수법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12] 그러면 교재의 단원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13]

---

12) 원진숙(2000)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의 단원이 '본문, 문형,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준비도입단계, 제시단계, 연습단계, 실제활용단계, 확인·점검단계'의 단원 구성을 제안하였고 김정숙(2002)에서는 '단원제목, 학습목표, 도입, 예시문, 발음, 어휘, 문법, 과제, 문화, 자기평가'의 단원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1) 단원 구성 체재 변천

최근 들어 한국어 교재 단원을 구성할 때 한국어 학습자에게 언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의사소통 능력도 기르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은 교재 개발에 상당 부분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발행된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이나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는 단원 구성은 여러 가지가 고려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단순한 구성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본문과 번역문만 제시하던 구성[14]에서 연습문제를 더하고, 또한 연습문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연습문제가 제시되었다. 본문과 연습문제의 사이에 발음/ 단어/ 문법 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구성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좀더 복잡한 구성으로 단원이 구성되고 있다.

① 본문 → 번역 유형

주로 근대계몽기 외국인에 의해 쓰여진 교재의 경우 문법과 회화를 함께 다루었고 사실 단원의 개념 또한 희박했었다. 1870년대부터 1920년대 말까지는 주로 기본이 되는 회화문을 제시하고 그것을 영어나 일어 등으로 번역해 놓은 유형의 교재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Ross(1877: 6)를 살펴보면 단원별로 문장의 수는 다르지만 한국어 문장 아래 로마자 표기 및 단어별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Ross(1882) 개정판에서는 한국어 문장 위쪽에 영문번역한 것을 더 적어 놓은 것이 차

---

13) 민현식(2000, 2002)에서는 현재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체재를 비교하고 있다.

14) 허병렬(1996), 『한국어 2』의 경우 단원에는 본문만 있고 뒤에 학습지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점이다. Scott(1887, 1893)에서는 한 과에 16개씩의 문장을 제시하고 로마자, 각 단어의 영어 번역, 전체 문장 의미를 영어로 제시하고 있다. Gale(1894, 1916)에서는 문장과 영문 번역만을 보이고 있다. Underwood (1890)에서는 문법 설명과 예문이 있고 영문-한국어 문장/ (단어번역(아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교재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없어진다.

② 본문 → 연습문제 유형

본문 → 연습문제의 유형 중에서 연습문제가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식으로 구성된 교재도 있다. 박창해(1965)에서는 '본문 → 교체연습 → 유형연습 → 문답연습 → 산문연습 → 단어연습'의 구성으로 연습 부분이 좀더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③ 본문 → 단어설명 → 문법설명 → 연습문제 유형

이 유형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개발된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서 나타나는 단원 구성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세대『한국어교본』(1967)에서는 '본문 → 추가 단어나 문장(Additional Vocabularies(Sentences)) → 문법연습(Grammar Note) → 연습(교체연습/ 응답연습)'의 구성을 나타낸다. 박창해 · 박기덕(1973), 박기덕(1980)이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B. Nam Park(1968, 1969)에서는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이나 연습문제는 모두 영어로 쓰고 있으며 '본문 → 번역(로마자표기/ 단어번역/ 문장번역) → 대화 설명(Note on Dialogues) → 문법설명(Grammar Notes) → 문형연습(Drills) → 연습(Exercises)'로 왼쪽 페이지 한국어 대화를 제시하고 오른쪽에 번역문을 제시한다. 2권에서는 로마자 표기가 없어지고 단어번역과 문장번역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형연습 다음에 보충 대화

(Supplementary Dialogues for Comprehension)와 읽기 지문(Narratives for Comprehension and Reading)이 더 첨가되었다.

④ 통합형 교재 유형

이화여대(1999-2002)와 서강대(2000-2001), 경희대(2000-2001) 교재를 비롯하여 최근 개발된 몇 가지 교재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과제 중심으로 개발된 교재이다.

(14) 이화여대 1-3: 공부합시다(Activities) → 연습 → 쉼터 → 해 봅시다 (Tasks) → 읽기(단어와 표현, 내용 이해)

이화여대 4: (기능/ 문법/ 관용표현) 과제 → 도움표현 → 어휘 → 대화 → 발음 → 재미있는 한국어 → 이야기 주머니 → 토론 → 읽기 → 쓰기 → 심화문법 → 듣기

경희대 중급 1-2: 도입 → 듣고 말하기 → 듣기과제 1 → 문법 → 듣기과제2 → 읽고 말하기 → 쓰기 → 한국 문화 → 듣기 지문

서강대 1-2: 말하기(Speaking) → 읽고 말하기(Reading and Speaking) → 듣고 말하기(Listening and Speaking) → 점검 (Checklist) → 문법(Korean Grammar) → 문화요소 (Cultural Components)

숙명여대: 주요표현 → 대화연습 → 의사소통활동 → 문화소개

KLEAR 1: 목표(Objectives) (문화(Culture)/ 문법 (Grammar)/ 과제 (Task)/ 기능(Function)) → 대화(Conversation) → 산문 (Narration) → 새 단어와 표현(New Words and Expressions) → 문화(Culture) → 문법(Grammar) → 과제 (Task)/기능(Function)

자료 (14)와 같이 각 교재마다 단원 구성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원 구성이 이렇게 세분화된 것은 '도입(warm up) → 제시·설명(presentation) → 연습(practice) → 사용(use) → 마무리(follow up)'와 같은 수업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이와 관련해 말하기 수업 방식에 대한 논의나 과제의 개념/ 기능/ 유z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교재 단원 구성 개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과제를 단원 구성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 단원 제목의 변천

한국어 교재에서 단원 제목은 단원 제목이 없는 경우/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로 제시한 경우/ 단원의 대표 문장이나 주요 문법 형태가 포함된 문장을 제시한 경우/ 기능을 사용한 경우 등이 있다. J. Scott(1887, 1893), S. E. Martin 외(1993)에서는 특별한 단원 제목 없이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밖에 다른 교재들은 모두 단원 제목이 실려 있다. 초기 교재들은 주로 문법서와 회화서의 혼합형식이 많기 때문에 문법에 관련되는 단원은 문법 범주와 관련된 단원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회화 부분에서는 Ross(1877)에서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단원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단원 제목이 제시되고 있다.

(15) 1. Library 2. School 3. Kitchen 4. Dinning Room 5. Visitors 6. Bed Room 7. House Building 8. Compound 9. Domestic Animals 10. Wild Animals 등 (Ross, 1877)

(16) 1. 한글 2. 발음 3. 인사 4. 학교 5. 교통 6. 물건 사기 7. 물건 사기(계

속) 8. 계절과 날씨(기후) 9. 시간 10. 방문 11. 인사와 소개 등 (Vandesande A. V., 1968)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개발된 교재들에 문장형식의 단원제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Francis Y. T. Park(1984)의 {22. 얼마나 멀어요?/ 27. 무슨 뜻입니까?/ 28. 천천히 갑시다 등}을 비롯하여 고려대(1988) {제6과 친구가 옵니다/ 제7과 오늘 친구를 만납니까?/ 제8과 세 사람이 식당에 있습니다/ 제9과 나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등}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문장으로 단원 제목을 제시하는 교재와 간단한 단어로 제시하는 교재가 함께 개발되었다.

(17) 1. 이름이 무엇입니까? 2. 공부하기가 재미있습니다 3.뭘 드시겠습니까? 4. 이것이 얼마입니까? 5. 여기 세워 주십시오 6. 친구 집에 갔어요 7. 날씨가 좋습니다 8. 몇 번에 거셨습니까? 9. 영화를 보러 갈까요? 10.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연세대, 1992)

한편, 숙명여대 교재는 자료 (18)과 같이 기능을 중심으로 한 단원 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18) 1. 인사와 소개 2. 물건 사기 3. 전화하기 4. 주문하기 5. 길 찾기 6. 약속하기 7. 여가생활 8. 볼일 보기 9. 부탁하기 10. 취향 11. 초대 12. 건강생활 (숙명여대, 2002)

(3) 학습 목표의 변천

한국어 교재에는 주로 단원의 학습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교재가 대부

분이다. 고려대(1989) 『한국어 회화 4』에서 각 단원마다 '초점'이라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9) 현대사회와 여유: 초점
(1)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여유없이 살아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2) 여유있게 살아가는 사람에 관한 일화를 생각해 봅시다.

KLEAR(2000)와 이화여대(2002)에서도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문화/ 문법/ 과제'의 목표를 따로 제시하고 '기능/ 문법/ 관용표현'으로 나누어 따로 제시하고 있다.

(20) KLEAR: Objectives: Culture/ Grammar/ Task/ Function
이화여대: 기능: 아파트 수리 요청하기/ 서술의 글을 읽고 이해하기 등
문법: -(으)며/ -듯이/ -(으)ㄹ 듯이
관용표현: 속이 타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다/ 허파에 바람 들다
한국어 세계화추진위원회(2000), Learning Point
인사하기/ 소개하기, -이에요/ 예요, -이/ 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교재의 단원에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학습목표'를 제시한 교재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학습목표' 기술의 필요성[15]이 제기되고 있으며 단순히 한두 문장으로 표현된 학습목표에서 벗어나 기능/ 문법/ 문화 등과 관련된 학습목표를 제시한 교재가 개발되고 있다.

---

15) 민현식(2000)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실태를 조사하고 매 단원마다 학습목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4) 본문 형식의 변천

한국어 교재에서 본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각 교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ㄱ. 본문의 종류: 문장 나열/ 대화/ 산문/ 일기/ 편지/ 광고/ 시나리오/ 옛날 이야기
ㄴ. 본문 제시 방법: 대화형
대화참여자 명시 방법: 번호 표기/ '가, 나' 표기, 역할 표기/ 이름 표기
대화참여자가 명시 위치: 왼쪽에 표기/ 위에 표기
ㄷ. 본문의 길이와 수
ㄹ. 번역 여부: 본문-번역/ 본문-로마자표기-번역/ 부분적 한자 표기
번역 제시 위치: 아래/ 옆/ 뒷장

초기 교재는 주로 필요한 문장을 나열하여 부분 부분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화자나 청자는 제시되지 않고 단순한 나열에 불과했다. 그 후 주로 대화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대화의 형식이나 길이도 다양하다. 대화참여자가 제시된 본문도 있고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대화형과 간단한 산문이 함께 혼합된 본문도 있다. 연세대(1992)와 같이 6-7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짧은 대화문이 5개씩 실려 있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좀 긴 분량의 글이 본문으로 실리는 경우도 있다. 대화참여자의 경우도 최근에는 교재 전체에 걸쳐 일정한 대화참여자가 등장하고 이를 교재 앞부분에서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시해 주는 교재도 있다.

Ross(1877: 6)를 살펴보면 단원별로 문장의 수는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본문이 제시되고 있다.

(22) 너 되션말 보이고쟈 한다
ne doeshun mal bo-ighojia handa
I Corean words (to) learn want

네 나를 션싱 더졉 하갓너니
ne narul shiunseng dejiup haghannuni
You (for) me teacher engage, will?

너 더졉 히올리
ne dejiup ha ori
I engage can

박창해(1965)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 (23)과 같다. 곧, 본문 대화에 나오는 단어를 미리 제시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제시하고 있다.

(23) 교장실/ 전화/ 벨/ 울다/ 비서/ 수화기
- 교장실 전화의 벨이 울렸다. 비서가 수화기를 들었다.-
비서 : 교장실입니다.
대다
로우즈 : 세브란스 병원 로우즙니다. 교장 선생님 좀 대어 주십시오.
지금
회의 중
비서 : 교장 선생님은 지금 회의 중입니다. …(중략)…

연세대 한국어교본(1967)에서는 자료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 부분에 영어 번역이 제시되어 있다. B. Nam Park(1968)에서도 한 쪽 전체에는 한국어 대화가 있고 다른 쪽에는 로마자 표기와 영어 번역이 실려 있다. Vandesande A. V.(1968)에서도 비슷한 형식이나 강세와 억양을 표시

한 점이 다르다. 그리고 대화참여자가 대화문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대화문에 번호가 붙어 있다. 박창해 · 박기덕(1973)에서는 로마자표기부분에서 억양표시를 하고 있다. Francis Y. T. Park(1984)도 강세와 억양 표시가 없는 점을 제외하면 Vandesande A. V.(1968)과 같은 형식으로 본문을 제시하고 있다. Suk-in Chang(1990)에서도 비슷한 형식인데 영어로만 상황을 제시한다.

(24) 제1과 인사말 (Unit One: Greetings)

안녕	peace
하십니까?	do (you) do See grammar note I, II
존스 : 안녕하십니까?	Jones : How are you? (Are you well?)
예	yes
김 : 예, 안녕하십니까?	Yes, I am well. How about you?

이와 같이 대화참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본문 형식은 한국외대(1996, 1997)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Samuel E. Martin & Young-Sook C. Lee(1986)에서는 본문과 영문번역 옆에 단어의 의미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25) Korean	English	Amplification
1. Yeki ka eti ey yo	What place is this?	yeki 'this place, here' eti 'what place? where?'
2. Yeki nun hak kyo 'ey yo	This (place) is a School	hak kyo 'school'

S. E. Martin 외(1993)에서는 앞 부분 단원에서 본문 바로 아래 영문번역을 비롯해서 간단한 문법 설명까지 하고 있다. 후반부로 가면서 한국어로만 본문을 제시하고 있다.

(26) 김선생 : 에릭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What country are you from, Eric?
[에릭씨 Eric (more polite than just 에릭); 어떤... of 어느... which?;
어느 나라 shich country?; 사람 person; 어느 나라 사람
a which-country-person?]
에 릭 : 나는 영국사람이에요.
I'm English
[나는 I (old information, topic); 영국 England; 영국사람
England-person]

연세대(1992)와 같이 본문과 단어가 함께 제시되는 형식도 있다. 본문 영역은 뒤에 따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문의 번역을 함께 같은 쪽에 제시하던 형식에서 뒤에 따로 제시하는 형식으로 본문의 형식이 달라짐을 살펴볼 수 있다.

(27) 오늘은 학교가 시작하는 날이다. 존슨씨는 교실로 들어갔다.
박선생 : 어서 오십시오.
존 슨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선생 : 앉으십시오.
존 슨 : 고맙습니다.
어서 please 오다 to come 선생 teacher 앉다 to sit 고맙다 to thank

Fred Lukoff(1993) 1권에서는 본문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번호순으로 문장이 제시된다. 이 문장들은 단원에 따라 8개 정도만 제시되기도 하고 27개까지 제시되기도 한다.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교재 앞부분에서는 교실에서 필요한 지시문 위주로 제시하지만 그 다음 단원에서는

단원 제목과 관련되는 문장이 제시된다. 거의 한 사람의 독백형식으로 연결하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대화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다른 유형은 문답형식으로 역시 번호 순서대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의 본문이 제시된다. 왼쪽에 한국어 문장이 있고 오른쪽에 영어번역이 있다. 2권에서는 편지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글이 실려 있고 그 뒤에 문답형식의 대화문이 간단히 제시된다. 3권은 각 단원별로 상황을 제시하고 대화문이 실려있다. 역시 왼쪽에 한국어 문장이 있고 오른쪽에 영어번역이 있다.

(28) 아이가 그린 그림

1. 아이가 사람을 그려요.
   A child is drawing a picture of a person.
2.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He has drawn a circle on some paper.
3. 이번에는 동그라미 가운데(에)
   세모꼴을 그려요.
   Now he is drawing a triangle in the center of the circle.
4. 그건 코에요.
   That's the nose.
5. 코 양쪽에 점을 하나씩 찍어요.
   He places a dot on each side of the nose.

…(중략)…

문답

1. 문 : 아이가 뭘 그렸어요? What did the child draw?
   답 : 사람을 그렸어요. He drew a person. …(중략)…

연세대(1992, 1993, 1994) 교재는 1권과 2권은 짧은 대화문 4개와 산문형식 지문 1개를 제시한다. 대화 상황과 대화참여자가 명시되어 있고 대화

문 아래 단어와 영어번역이 있다. 본문 전체에 대한 영문번역이 뒤에 따로 실려있다. 3권과 4권은 처음 나오는 지문이 산문형식이고 나머지 4개는 대화형식인데 4권에서부터 단어 제시와 영문번역이 없다. 5권과 6권에서는 대화형식 4개 산문형식 1개를 제시한다.

이화여대(1998, 1999, 2000, 2002) 교재 중 1권은 일반적으로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 없고 '해 봅시다(Tasks)'에 대화문이 실려있다. 대화참여자가 있으며 한국어만 제시한다. 2권-4권도 같은 형식인데 3권과 4권은 대화참여자를 번호로 표시한다.

서울대(2000) 교재는 1권과 2권은 대화문 형식도 있고 산문 형식도 있다. 대화참여자가 있는 단원도 있고 없는 단원도 있다. 지문 아래 영문번역과 단어/ 번역이 있다. 3권과 4권에서는 대화문, 산문, 뉴스, 광고, 시나리오, 옛날 이야기 등의 형식을 본문으로 제시한다. 본문 아래 단어를 제시하는데 번역은 하지 않는다.

경희대(2000, 2002) 교재에는 초급은 단원 안에 본문이 제시되지 않고 듣기 지문이 있는데 교재 뒷부분에 영문번역과 함께 실려 있다. 중급은 단원의 끝에 듣고 말하기/ 듣기 과제에 대한 듣기 지문이 실려 있다. 서강대(2000) 교재는 1권과 2권 Functions/ Applications 부분에서 대화문을 제시하고 있다.

(5) 연습 문제의 변천

1960년대에 들어와 개발된 교재들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연습문제가 제시된다. 다음 자료는 박창해(1965), 연세대(1967), Vandesande A. V. (1968), 박창해・박기덕(1973), 강윤호・김명희(1979), 서울대(1979), Francis Y. T. Park(1984), Fred Lukoff(1993), S. E. Martin 외(1986, 1993), 연세대(1992, 1993, 1994)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연습문제 유형이다.

(29) 교체 연습 : 김 선생님은 지금 회의 중입니다. (운동/ 방문/ 말씀/ 주문/ 상의)

(30) 대치 연습 : 학생도 잘 잤어요? 그 분도 잘 잤어요? 짐도 잘 왔어요?

(31) 문답 연습/ 응답연습 : 누구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셨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저축했어요.

(32) 유형 연습 : -을 -아 -다 (만지다/ 찾다/ 말기다..)
이것을 깔아 드립니다/ 매우 좋은 책을 모아 보겠습니다.

(33) 변형 연습 :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 편지를 쓰고 계십니까?

(34) 통합 연습 : 교통이 복잡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 교통이 복잡할까봐, 가지 않았어요.

(35) 확장 연습 : 선생님한테 물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물어 봅시다. → 선생님한테 물어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아무한테나 물어 봅시다.

(36) 문장종결 연습 : 학교에 갑시다/ 학교에 가자.

고려대(1989) 교재에서는 앞서 제시한 유형의 연습문제도 있지만 그림도 함께 제시하거나 주제발표/ 조별토의/ 듣기 연습 등이 실려있다. 한국외대(1996, 1997) 교재에서도 그림 보고 문장 만들기, 그림 보고 설명하기 등의 연습문제를 볼 수 있다.

B. Nam Park(1968, 1969)에서는 문형연습(Drill)과 연습(Exercise)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모두 로마자 표기로 적혀 있고 영어 번역이 있다. 문형연습(Drill)은 (29-36)에서 제시한 연습이며 (37)과 같은 연습(Exercise)은 최근에 말하는 과제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37) A. Assuming that you are at Seoul Railroad Station, find out at the information booth

1. what time is the next train to Pusan
2. if it is an express
3. it the 8 a.m express has already left
4. how many times there are express trains to Pusan per day. (중략)

S. E. Martin 외(1992: 52)에서도 과제 형식의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38) One student asks another about his of her nationality and occupation (use your imagination!); when the reply has been given, the first student asks the same questions about another person who is the friend of the other student. When this has been completed, change roles.

Adrian Buzo & Shin Gi-Hyon(1990) 교재에서는 문형연습(Drill)과 함께 'Crossword/ Making Dialogue/ Bingo/ On Stage, Planning a Trip' 등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Activity)을 연습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2000) 교재는 문형연습(Drill)에 속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내용 이해 문제, 대화를 순서대로 연결하기, 읽고 쓰기 문제, 듣기 문제, 이야기 하기, 설명하기, 지시대로 과제 해결하기가 제시되고 있다. 가나다 Korean(1997, 1999), 이화여대(1998, 1999, 2000, 2002), 경희대(2000, 2002), 서강대(2000), 선문대(2000), 아름답게 크는 한국어 교육 연구소(2000), 한국어 교육 문화원(2001), KLEAR (2000), 숙명여대(2002) 교재에서는 과제를 해결하는 연습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한국어 교재에 사용된 연습문제는 주로 한 문장을 잘 완성하는 유형이 주도적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문장 이상의 단위, 곧, 담화를 완성하는 차원이 문제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읽고 쓰기, 듣고 쓰기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6) 문화 소개의 변천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연세대 한국어 4(1994)에서 '문화해설'이 도입되어 이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이 따로 단원 안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9) 연세대(1994, 1999) : 문화 해설
이화여대(1998-2002) : 쉼터, 언어와 사고, 이야기 주머니
가나다 Korean(1997, 1999) : 문화소개 (한국 엿보기)
경희대(2000) : 한국의 문화
서강대(2000) : Cultural Components (영어로 소개)
선문대(2000) : 문화소개
KLEAR(2000) : Culture
숙명여대(2002) : 문화

(40) 연세대(1994) : 한국인의 기다림/ 진인사 대천명/ 한국인의 자연관/ 오복이야기/ 스승과 제자/ 말의 중요성/ 한국인이 흘수를 좋아한다?/ 인간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윤리/ 한글의 글자 모양은?/ 24절기
경희대(2000) 초급 1 : 인사예절/ 한국의 상차림
경희대(2002) 중급 1 : 한국인의 별명/ 주도/ 절기와 세시풍속

연세대(1994)에서는 중급 단계의 교재에서 문화 소개를 하였고 주로 문화와 관련된 글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이후에 개발된 교재들은 모두 초급에서부터 문화소개를 시작하고 있다. 교재에 따라서 영어

로 소개한 경우도 있고, 짧은 글과 사진 및 그림을 통해 소개하기도 한다. 교재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 매 단원 문화를 제시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문화에 대해 구체적인 제목을 제시한 교재도 있고 제시하지 않은 교재도 있다.

2) 재외국민을 위한 교재

재외국민을 위한 교재는 1960년대말 경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서울대 어학연구소/ 재외국민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행되었고 그 대상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는 1960년대 말에 재일교포 유학생을 위한 교재 발음/ 문형/ 독본/ 작문 등의 교재를 편찬하였다. 이 중 독본을 제외한 나머지 교재는 단원별로 발음이나 문형, 작문과 관계된 문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1) 단원 구성 체재 변천

① 본문 → 연습문제(공부할 문제) 유형

1930년대 발행된 소련의 고려인을 위한 문법서를 비롯하여 재외국민용 교재의 단원이 주로 이런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오창환(1933) 『초등학교 조선어교과서』는 문법 형식을 중심으로 단원명이 제시되고 각 단원별로 문법 설명이나 그와 관련된 지문을 제시하고 '과제'라는 연습문제를 주어 해결하게 하였다. 어떤 단원은 바로 과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오창환(1934) 『중등학교 조선어문법 교과서(문장론)』에서는 6-7학년용으로 그 단계에 맞는 문법적 지식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별한 단원의 의미가 없다.

앞부분에 문법 설명을 하고 뒤에 련습재료를 붙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용 교재도 이런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재외국어어린이용 국어 2(196?)는 공부할 문제가 '글씨쓰기/ 말 익히기/ 말 대보기/ 읽어보기 / 짧은 글 짓기/ 대답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재일 한국소학교용 『한국어 1-6』(1991, 1992), 허병렬(1999-200) 『한국어 3-6』, 국제교육진흥원(1995), 『한국어 초급 I, II, III, IV』 등도 단원이 본문과 공부할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본문 → 연습문제의 유형 중에서 연습문제가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식으로 구성된 교재도 있다. 재외동포용(일어권)(2000) 『한국어 입문』에서는 '학습목표 → 본문 → 공부할 문제(몇 번 반복) → 쓰기 연습'으로 되어 본문과 연습이 계속 반복되면서 한 단원을 이룬다.

② 본문 → 단어설명 → 문법설명 → 연습문제 유형

한국어강좌(196?)는 '본문 → 단어 → 주의사항(발음) → 문형연습 → 연습문제', 서울대 어학연구소 한국어 1-2(1978)는 '본문 → 낱말 → 발음 → 문법 → 보충낱말 → 연습문제'로 구성된다.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 『국어회화 1』(1981)은 '본문 → 발음연습 → 대치연습 → 문답연습 → 단어공부 → 문법공부'로 되어있는데 발음연습에서는 단어 밑에 발음기호를 제시하고 발음에 관한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다. 단어 공부에서는 단어의 의미나 경어, 유사한 예를 더 제시하여 단어 확장도 하고 있고 한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어 회화 2』(1989)는 일상편과 응용편으로 나뉘는데 일상편은 '본문 → 발음연습(발음기호 없음) → 단어공부 → 대치연습 → 문답연습 → 연습문제', 응용편은 '본문 → 대치연습 → 문답연습 → 학습연구'로 구성된다. 『한국어 초중급』(1991)은 초급은 '학습요소 → 본문

(아래 줄 긋고 단어 제시) → 기본문 해설 → 문형연습 → 문답 → 연습문제'로 되어 본문은 학습요소에 맞는 문장들이 실려있다. 중급은 '학습요소 → 본문(아래 줄 긋고 단어 제시) → 어휘 → 문법 · 문형연습 → 연습문제'이며 본문은 '산문형식/ 일기/ 옛날 이야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국제교육진흥원(1995), 『한국어 중급 I(상, 하)』는 '본문 → 학습활동(내용학습 → 문형연습 → 문법 → 회화연습 → 연습문제)', 국제교육진흥원(1997), 『한국어 고급 I(상,하)』는 '본문 → 학습활동(내용학습 → 회화학습(문형연습 → 대치연습 → 문답연습) → 학습문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김석연(1996)은 SAT II를 위한 교재로 '본문(Model Conversation) → 새 단어와 표현(New Words and Expressions) → 문법설명(Grammar Notes) → 구어연습(Oral Practice) → 문법연습(Grammar Drills) → 산문(Narrative Passage) → 읽기 지문(Supplementary Reading)'으로 단원 구성이 되어 있다.

③ 통합형 교재 유형

최근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개발된 교재는 통합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한국어 5 상』은 '학습목표 → 본문 → 새로 나온 말 → 발음을 익힙시다 → 새로운 표현을 배웁시다 →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 글 소개 → 나의 이야기를 써 봅시다 → 듣고 대답해 봅시다'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2001), 『한국어 회화 1-2』는 '학습목표 → 대화문 → 새로 나온 말 → 따라하기 → 대화하기 → 이야기 만들기 → 듣기 → 함께 하기 → 쓰기'와 같이 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2) 단원 제목의 변천

재외국민을 위해 만든 교재들에 제시된 단원 제목은 앞에서 살펴본 외

국인을 위한 교재와 별 차이가 없다. 보통 문장으로 제시하거나 단어 혹은 구절로 제시하는데 다음 자료처럼 그 단원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나 기능을 단원명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41) 1. 나의 주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4. 일상 생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써 봅시다/ 5.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7. 신문을 읽어 봅시다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한국어 5 상』)

이 외에도 여러 교재에서 '판단하며 듣고 말하기/ 여러 가지 말하기/ 시조를 음미한다' 등과 같은 단원명이 일반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단원명과 함께 제시되기도 한다.

(3) 학습 목표의 변천

국제교육진흥원의 『한국어 초·중급』(1991)에서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42) 초급 1과
1. 한글의 발생과 글자 이름을 안다.
2. 획순에 따라 한글을 쓸 수 있다.

중급 1과
1. 주어(主語)를 높이는 표현 (表現)
2. -겠다, -ㄹ/을 것이다. (意圖, 推測)
3. 보조동사 (補助動詞)
4. -이고, -(이)다. (대등절 (對等節))

국제교육진흥원 『한국어(입문편)』(2000)에서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

을 공부해봅시다.'와 같은 학습목표가 단원마다 제시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한국어 5 상』에서도 각 단원의 처음에 학습목표가 제시되고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2001)에서도 '1과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이름 말하기(한국어 1)'와 같은 학습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4) 본문 형식의 변천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1981)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1978, 1979)도 이와 비슷한 형식이며 본문 아래 새로 나온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43) (하숙 : 하숙집에서 아침 인사를 한다)
민　　수 : 아주머니, 안녕히 주무셨읍니까?
아주머니 : 학생도 잘 잤어요?
민　　수 : 네 아주 잘 잤읍니다.
아주머니 : 그럼 세수(洗手)하고 어서 아침 들어요.

국제교육진흥원(1995), 『한국어 초급 I, II, III, IV』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문형식을 포함하여 대화체의 본문도 제시하고 있다. 단원의 성격이나 목표에 따라 본문의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초급에서는 수업에 필요한 문장을 나열하여 한 과의 본문이 되기도 한다.

(44) 하늘에 별이 많이 있습니다. 영이가 별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수도 별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별이 매우 많습니다.

김석연(1996)에서는 대화체가 아닌 자기 소개 형식의 본문도 살펴볼 수 있다.

(45) 이유진 : 저는 이유진입니다. 저의 영어 이름은 유진 리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이고, 11학년입니다. 출생지는 뉴욕주의 뉴욕시입니다.

제임스 : 박 제임스입니다. 저는 윌리암스빌 고등학교 학생이고, 버팔로 세종한글학교의 세종반입니다. 세종반은 SAT Ⅱ 한국어 반입니다. 중학교는 하임 미들입니다.

혜 란 : 유혜란이라고 합니다. 중학교는 사우스 미들이고 고등학교는 니콜스이고, 9학년입니다. 저희 취미는 스키입니다.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동생과 여동생입니다.

(5) 연습 문제의 변천

근대계몽기에서 1950년대말 사이에 개발된 교재는 연습문제가 거의 없는 형식의 문법/ 회화서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소련 고려인의 민족어 교육을 위한 교재 중에서 오창환(1933), 『초등학교 조선어교과서』는 문법 형식을 중심으로 단원명이 제시되고 각 단원별로 문법 설명이나 그와 관련된 지문을 제시하고 '과제'라는 연습문제를 주어 해결하게 하였다. 어떤 단원은 바로 과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46) 과제 2 : 아래의 글이 모도 몇 개의 구어로써 되엇으며 각 구어들이 몇개의 말마듸로써 되엇느냐?
우리는 삼학년생이다. 배호는 과정이 많다. 아이들이 새 교과서를, 가지엇다. 우리는 새 교과서로써 새 지식을 배혼다. 아이들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새 지식과 새 긔술을 잘 배호자!

국제교육진흥원(1995) 『한국어 초급 Ⅰ, Ⅱ, Ⅲ, Ⅳ』, 재일한국소학교용

『한국어 1-6』, 재미한인한교협의회, 『한국어 3-6』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공부할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47) 선생님을 따라 바르게 읽어보세요/ 빠진 글자를 써넣으세요/ 이름을 말해 보세요/ 바르게 쓴 말을 찾아보세요/ 그림에 맞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같은 말끼리 이어 보세요/ 학교에서 하는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띄어쓰기를 해 보세요/ 영어로 바꾸어 보세요/ 그림을 보고, 빈 자리에 결과가 될만한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국제교육진흥원(1995), 『한국어 초급 Ⅲ, Ⅳ』(상·하) 공부할 문제에서는 단원별로 듣기 연습이 실려 있고 교재 뒤에 듣기 연습용 제재가 제시되어 있다. 이 교재 중급은 연습 문제가 좀 더 세분화되어 [내용학습/ 문형연습/ 문법/ 회화연습/ 연습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에서는 [내용학습/ 회화학습(회화연습/ 대치연습, 문형연습/ 대치연습/ 문답연습)/ 학습문제]로 구성된다. 김석연(1996)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교체연습 → 대치연습 → 문답 연습 → 유형연습 → 변형연습 → 통합연습 → 확장연습'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2000, 2001) 교재는 '학습목표 → 대화문 → 새로 나온 말 → 따라하기 → 대화하기 → 이야기 만들기 → 듣기 → 함께 하기 → 쓰기'로 구성되는데 학습목표와 새로 나온 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게 하고 있다.

한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의 경우 단원 구성에서 문화 소개에 초점을 두고 소개하는 교재는 없다. 다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 '김치'나 '명절'과 같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근대계몽기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재의 특징을 시기별로 살피고, 특히 교재의 단원 구성의 형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어 교재를 근대계몽기부터 1950년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곧, 본격적인 기관 중심의 교재가 주로 개발되는 196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교재 특징을 살피고, 한국어 교육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폈다. 근대계몽기부터 1950년대까지는 외국인 학자의 문법/ 회화서 형식의 한국어 교재와 재외국민 대상의 한국어 교재가 많이 나타난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내외적으로 기관 중심의 교재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였다. 교재를 수집·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주 교재인 말하기 교재에 비해 읽기 교재, 듣기 교재, 쓰기 교재나 활용교재가 그 종류와 수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급이나 중급에 비해 고급 교재도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고급교재의 개발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재도 개발 중에 있다. 곧, 한국어 교재는 현재 교재의 다양화(언어별/ 기능별/ 대상별), 교재의 전문화(일반인 대상/ 전공자 대상), 교재의 시각화(그림/ 사진/ 보조 자료 활용), 교재 내용의 표준화(교육과정/ 표준문법)를 추구하면서 계속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어 교재의 역사적 변천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교재의 단원 구성의 형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폈다.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은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 저자, 학문적 경향, 대상 학습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주교재를 중심으로 살피고 읽기 교재나 듣기 교재, 문법 교재 등은 제외하였다. 곧, 특정한 목적이나 수준을 대상으로 단원 구성을 살핀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흐름을 살펴본 것이다. 단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단원의 제목이나 학습목표의 제시는 어떻게 해 왔는지, 본문을 제시하는 형식이나 본문의 유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연습 문제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 소개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관한 개략적인 변천과정을 살폈다.

참고 문헌

고영근(1987),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_____(1998),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권미정(199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연구 - 기존교재의 검토와 새 모델의 모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탑출판사.

김정숙(2002),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와 교재 구성」,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김중섭 · 조현용(1996), 「북한의 언어정책과 한국어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_____(1998), 「북한의 한국어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중섭(1999), 「북한의 한국어 교재 연구」, 『박갑수교수 정년퇴임 논문집』.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_____(2002), 「한국어 교재론」, 『동남아시아 한국어 교육의 오늘과 내일』,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갑수(1999),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집문당.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 · 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신현숙(1999), 「한국어 학습사전」, 연대언어정보학회 전문가초청강연회 요지.

_____(2003), 「한국어 교육자의 역할과 임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특강 요지.

이기문(1982), 「조선관역어(런던大學本)」, 『국어국문학』 87, 국어국문학회.

이해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원진숙(2000),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체재 개선 방안」,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정 광(1990), 「중국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고찰」, 『중국에서의 한

국어 교육』 I, 이중언어학회.

조항록(2002), "한국어 교재" 수업 자료.

현원숙(2001),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및 방향」,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제2차 한국어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Suray Agung Nugroho, Lee So Young(2002), 「인도네시아 국립 가자마다 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및 문제점」, 『동남아시아 한국어 교육의 오늘과 내일』, 국제한국어교육학회.

Brown, James Dean(1995), *The Elements of Language Currisulum: A Systematic Approach to Program Development.* Newbury House Teacher Development.

Cunningsworth. A.(1995), *Choosing your Coursebook.* Heinemann.

McDonough, J. & C. Shaw.(1993), *Materials and Methods in ELT.* Cambridge: Blackwell.

[이 논문에서 인용한 한국어 교재 목록은 제시하지 않음]

■ Abstract

A Historical Change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Lesson Construction

Lee Jee-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 about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foreigners from 1877 to 2002. Under this purpose, firstly it is focused on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textbooks, and secondly it is compared differences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lesson (unit) between textbooks for foreigners (KFL) and Korean who live foreign country. It is analysed the historical changes of lesson construction, lesson title, goal of learning (objectives), basic dialogue, drills, exercises, task, cultural components.

There are some types of textbook lesson construction;

1) basic dialogue/ translation
2) basic dialogue/ exercises
3) basic dialogue/ (translation)/ note on dialogues/ grammar notes/ drills/ exercises
4) speaking/ reading and speaking/ listening and speaking/ checklist/ Korean grammar/ cultural components
5) objectives (culture/ grammar/ task/ function)/ conversation/ narration/ new words and expressions/ culture/ grammar/ task/ function

Most textbooks are emphasized the pattern drills; substitution drill, response

drill, transformation drill, level drill, combination drill and so on. Furthermore every lessons of textbooks have to show the goal of learning and culture points from low level to high level. There are many textbooks which Korean language institutions have published Korea and abroad, but it needs to develop various functional textbooks for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also for audio-visual aids and dictionaries according to the various type of learners' needs.

[Key Words] historical change, objectives, cultural components, drills, exercises, task